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 –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구조와 영향요인 –

New Social Risk? – Perception toward Immigrant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

Sook Yeon W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udaemun-gu, Seoul , Korea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social distance toward immigrants perceived by mainstream Koreans. Social distance is measured via psychological acceptance of immigrants as ‘neighbors’ and perception towards giving priority of works on immigrants. The data from the World Value Survey(2015) were used for an empirical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plit response between acceptance and exclusion regarding perception toward immigrants as "neighbors", while their perceptions in terms of "job-seekers" was predominately negative. Second, their stress over the limited resource taken by immigrants affected their negative perceptions toward immigrants, particularly among those who were less educated, temporarily employed, and belong to the lower social class. Mainstream Koreans in the highest social class, however, had extremely negative perceptions toward immigrants as "neighbors" rather than "job seekers". Third, negative perceptions toward immigrants as "job seekers" appeared even stronger among the respondents who were younger, male, unemployed and had more children.

Key words: new social risk, immigrants, acceptance as neighbors, work allocation, resource stress, World Value Survey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NRF-327-2011-2-B00806)

** Tel. +82-2-3277-4101. E-mail:sywon@ewha.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l. 20, 2015 / Revised: Aug. 17, 2015 / Accepted: Oct. 12, 2015

국문초록

단일민족-단일문화를 당연시 했던 한국에서 인종적 다양성은 도전이며 새로운 사회 위험으로 인식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하는 정도와 ‘일자리 배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2015년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이주외국인의 ‘이웃’수용에 있어서는 수용과 배제의 인식이 팽팽한데 반해 ‘일자리’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둘째,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각 집단이 인식하는 ‘자원스트레스’ 중요하게 작용한다. 교육수준이 낮고, 고용지위가 불안하고, 고용조건이 열악하며, 사회적으로 하위계층에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주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최상위계층은 이웃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중성을 보였다. 셋째, 자녀가 많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이, 실업집단이 이주외국인의 일자리 배정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신사회위험, 이주외국인, 이웃으로 인정, 일자리 배정, 자원스트레스, 세계가치조사

I. 서론

‘다양성’은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화두 중 하나이다. 과거와는 다른 탈중심화(de-centering), 초-다원성(hyper-pluralism)을 기반구조로 하는 ‘사회적 다양성’의 기준은 성(性)이나 인종은 물론 계층과 성적정향성(sexual orientation)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Alexander, 2001). 우리나라에서 성이나 계층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은 과거부터 존재해 왔지만, 인종이나 성적정향성에 따른 다양성은 비교적 최근 등장한 ‘새로운’ 다양성의 기준이다. 이처럼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현실을 구성하고, 그 새로운 현실은 과거와는 다른 대응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적 변화 속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기준인 ‘인종’에 따른 다양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1980년대 후반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이주 외국인이 2014년 현재 150만 명을 넘어 전체인구의 3%를 차지하고, 결혼이민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만 명에 이른다(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4).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이 전체인구의 1%에도 못 미쳤던 것을 고려하면 인종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이 얼마나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외국인의 증가는 오랫동안 단일민족-단일문화가 당연한 규범으로 생각하고 ‘순혈주의’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사라지지 않은 우리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야말로 ‘다문화적 도전’(multicultural challenge)이라고 할 수 있다(Kymlica, 1995; Won, 2008; Song, 2010).

이러한 차원에서 이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적 도전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의 한 요인으로 인지될 수 있을 것이다. 신사회위험은 후기산업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소수집단의 등장, 이들 집단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등과 연결된다(Esping Andersen, 1999; Taylor-Goodby, 2004). 주로 여성과 저숙련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주외국인 역시 새롭게 등장한 소수집단이라는 점에서 신사회위험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 이

주가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이처럼 과거와는 다른 신-사회위험의 한 요소인 인종적 다양성의 확대에 대해 우리사회는 어떤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외국인이 유입되기 시작한 초기에 비해 현재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수용적이라는 가정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미국에서도 인종적 다양성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노골적인 인종주의’(blatant racism)는 약화되었지만 ‘교묘한 인종주의’(subtle racism)가 강화된다는 논의도 있다(Pettigrew & Meertens, 1995; Williams, *et. al.*, 1999). 이렇게 본다면,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전통을 가졌던 우리사회에서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실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러한 인식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현실도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을 더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있으며 그러한 인식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15년에 제공된 가장 최신의 조사자료인 제6차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일반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이주외국인에 대해 갖는 인식과 그러한 인식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하여 ‘이주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하는 정도 그리고 ‘이주외국인에 대한 일자리 배정’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인식의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신-사회위험과 이주외국인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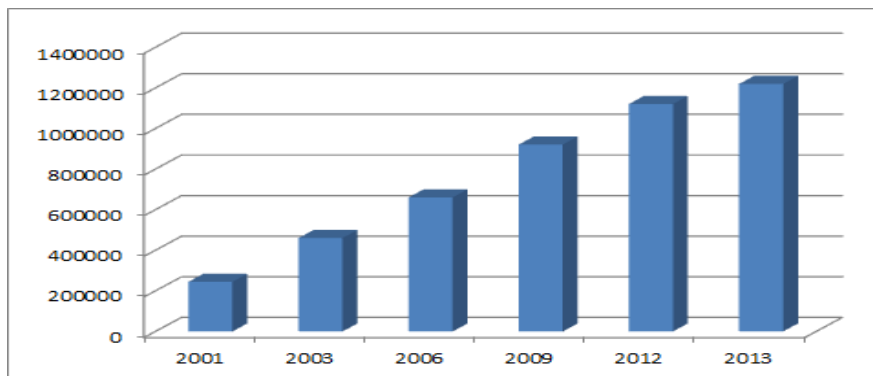
‘신-사회위험’은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발현되는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 및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과 관련하여 등장하였다(Kim, *et. al.*, 2010). 특히 경제성장의 둔화와 복지국가 재정의 악화,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인적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집단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망라한다. 이처럼 신-사회위험은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이 여성이나 저숙련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Esping Andersen, 1999; Taylor-Goodby, 2004).

그런데 본 연구에서의 신-사회위험은 여성과 같은 전통적 소수집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외국인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배제와 연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전술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오랫동안 단일민족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인종을 달리하는 외국인의 증가는 본질적인 사회적 변화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 외국인의 유입은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의 변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차별, 문화적 개방과 다양성의 확대, 소수인종의 정치적 입지 변화 등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변동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Hwang, 2007; Won, 2008; Chun, 2010; Han & Park, 2011; Won, 2011). 이처럼 본질적이고 새로운 변화는 이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주외국인의 대부분이 저숙련노동자로서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사회적 위협의 한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을 높인다.

이처럼 이주외국인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은 새로운 사회갈등과 그에 기초한 위협으로 인식될 여지를 제공한다. 이는 도구적 집단갈등모형(IMGC: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구적 집단갈등모형에 따르면(Esses, *et al.*, 1998, 2001; Won, 2008: 34), 집단 간 갈등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위협 인식은 자원압박(resource pressure)에 따라 달라진다. 자원압박은 “원하는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주관적 인식”(Esses, *et al.*, 2001)으로, 자원압박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다른 집단의 등장에 따른 갈등과 위협 인식이 함께 높아진다. 이를 이주외국인에게 적용하면, 다수집단의 입장에서 이주외국인이 증가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느끼게 되면 이주외국인의 유입을 위협으로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이주외국인의 압축적인 증가는 자원압박과 그에 따른 불안감 및 ‘위험’인지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말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에 포괄되었다가 2004년 고용허가제와 2007년 방문취업제의 시행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외국인의 증가세는 지속되었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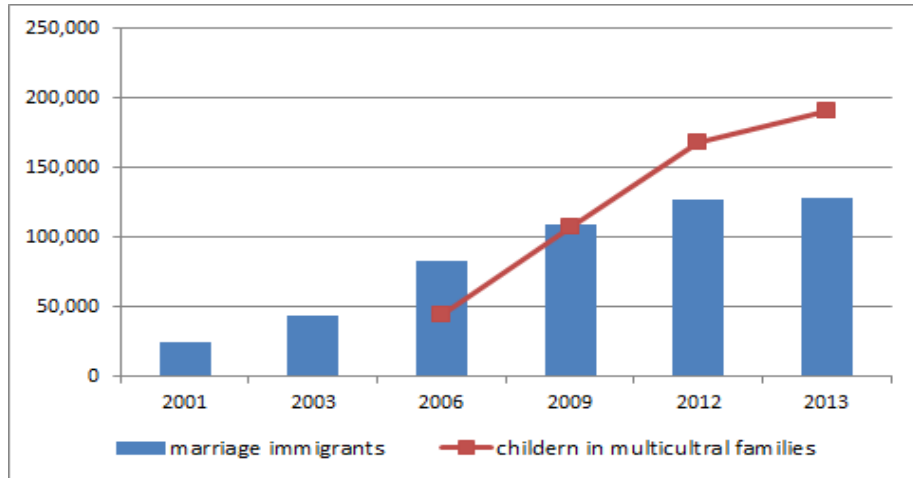


<Figure1> Trend in Incoming Immigrants (2001-2014)

※ Source: 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이와 함께 1990년대 중반이후 시작된 결혼이민여성의 유입이 2000년대 들어와 급증함으로써 인종에

따른 새로운 변화의 압축성을 가중시켰다(Hwang, 2007; Chun, 2010).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족 자녀 역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순혈'을 기반으로 한 가족구조의 본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었다(<Figure 2>).



<Figure2> Increase in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2001-2014)

※ Source: GSIS, 2014

이처럼 인종적 다양성의 확대가 짧은 기간에 걸쳐 압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형성할 여유없이 외국인 이주를 받아들이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간 단일민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익숙해있던 구성원들에게 이주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위협인식을 높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구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외국인이 급증할 경우, 집합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실제 경쟁관계가 아니어도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oenders, *et. al.*, 2003; Jackson, *et. al.*, 2004).

2.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

1) 구성요소

인종에 기초한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배제, 동화, 다문화로 구분된다.¹⁾ 첫째, 배제(또

1) 배제, 동화, 다문화는 이주 외국인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으로 주로 논의된다(Kymlica, 1995; Catles & Miller, 2003; Won, ; Park & Won, 2010). 이러한 구분은 국가정책의 유형을 논의하는 거시적 차원만이 아니라 이주

는 차별)는 주류집단에게 주어진 권리, 기회, 그리고 자원에 대해 이주외국인 집단이 접근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봉쇄한다. 배제 또는 차별의 정도는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데, 그 정도는 이주외국인 집단이 갖는 효용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주 외국인 집단이 갖는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과연 이들 집단이 주류사회의 발전이나 필요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배제의 정도는 이주외국인 집단이 주류사회의 질서를 훼손하거나 기존의 자원배분방식에 위협이 되는가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만일 이주외국인 집단이 주류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고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배제의 정도는 약화되고, 위협이 된다면 강한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동화이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에게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주외국인이 자신의 모국어, 문화, 가치관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주해 온 새로운 사회의 언어, 문화, 가치관에 적응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적응과 동화를 통해 주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될 때 비로소 이주외국인의 수용이 가능해진다.

셋째, 다문화이다. 전술한 배제(차별)나 동화 모두 주류사회를 기준으로 이주외국인의 도구적 효용에 대한 평가에 따른 인식이다. 만일 이주외국인의 효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화를,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별배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는 이주외국인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인식이다. 특히 이주외국인의 유입에 따라 형성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집단 사이의 평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배제나 동화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주외국인을 주류문화나 가치에 편입시키거나, 주류문화나 가치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주외국인과 함께 유입된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의 인정과 유지에 방점을 찍는다.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의 인정과 통합이 궁극적으로는 주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전향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상의 논의에 기반을 둔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또는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대한 미시적 유형화에도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개인차원의 미시적 태도에 이 유형화를 준용한다.

<Table 1> Models of Perception of Immigrants

	Exclusionary Model	Assimilationist Model	Multi cultural Model
View on Immigrants	Strangers/ Threat	Basically it permits people who have become members of civil society to join the nation and the state at the price of cultural assimilation	Mutual respect and tolerance
Policy Direction	Unwilling to accept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as members of the nation	- To create conditions favorable to a one-sided process adaptation - Immigrants are expected to give up their linguistic, cultural or social characteristics	Immigrants should be granted equal rights in all spheres of society, without being expected to give up their diversity
View on Discrimination	- Exclusionary immigration Polices , restrictive naturalization - Exclusion from full participation in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relations	Minimization of discrimination of immigrants	Willingness of the majority group to accept cultural difference and denial of discrimination

※ Source: Castles & Miller, 2003; Won, 2011

2) 영향요인

이처럼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스펙트럼은 복잡하다. 배제, 동화, 다문화가 사안이나 집단에 따라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예: 불법이민자에게는 강력한 배제를, 결혼이주 외국인에게는 동화를), 배제로부터 동화를 거쳐 다문화로 진행되는 발전적 단계로 나타날 수도 있다(Won, 2008). 이처럼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이 처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 그 각각의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갖는 진보적 이념이 영향을 미친다. 진보적 성향은 보수적 성향에 비해 성이나 인종에 기반한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하여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진보적 이념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선 결과의 평등이나 사회적 정의와 같은 적극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의 해소나 사회적 자원의 정의로운 배분을 강조하는 진보적 정치성향이나 믿음을 가진 경우, 보수적 이념을 가진 경우보다 소수집단에 대하여 차별이나 배제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통합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성별이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범위가 넓다. 이는 몇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는데(Ayers, et. al., 2009; Park & Won, 2010), 첫째, 여성의 관계지향적 성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대함으로 연결된다. 관계지향성과 관대함은 여성 스스로가 사회적 소수집단으

로서 동병상련과 감정이입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주외국인과의 경쟁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이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자원압력'을 남성보다 낮게 인식한다. 이 경우 이주외국인의 유입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공유해야 할 가능성이 적다고 느끼고 이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수용의 범위가 넓어지게 한다.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이주외국인을 포함한 소수집단 대해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수용적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진보적 인식이 강하고, 진보적 인식은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의 범위를 넓힌다. 진보적 인식은 사회정의나 형평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고착되어 있지 않고 유연하다.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적인 인식의 경향성이 강해지며 이에 따라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높아진다. 또한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관점이나 편견이 고착되고 쉽게 변하지 않아 나이가 어린 경우보다 경직적 인식과 태도를 가질 개연성이 높다.

소득과 연결된 계층인식도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만든다. 소득이 높고 계층사다리의 상층부에 위치하는 경우, 이주외국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해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 (Espenshade & Hempsted, 1996). 그 이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계층은 교육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어서 계층이 높은 경우 교육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다. 교육은 사회적 평등이나 관용 등 진보적 인식에 대한 노출기회를 높이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외국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의 범위가 넓다. 또한, 계층이 높은 경우, 이주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 계층의 상층부에 위치한 경우 이주외국인과 업무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고, 자신들이 갖는 기득권이나 자원에 대한 위협인식도 약하다. 이는 전술한바와 같은 이주외국인으로 인한 자원압박을 덜 느낌으로써 수용범위를 넓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고용상태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고용은 경제적 상황과 직결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나 고용안정성이 낮을수록 이주외국인과 같은 소수집단의 유입에 대해 민감해진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동일자원을 두고 이주외국인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나 실업의 경우처럼 고용상황이 나쁠수록, 이주외국인의 등장에 따라 자신이 가진 기득권이나 자원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압박감은 이주외국인에 대한 수용의 범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다음은 혼인 및 자녀수에 따라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혼인의 경우, 미혼이 기혼에 비해 이주외국인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미혼이 기혼에 비해 연령이 낮다. 전술한바와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성향과 사회정의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또한 미혼은 가족부양의 부담이 기혼에 비해 낮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이주외국인의 유입에 따라 나타나는 자원압박이나 경쟁에 대해 비교적 덜 민감하게 만든다. 이러한 가능성은 자녀수와도 연결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부양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더 많이 느낀다. 경

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포함한 사회적 자원 배분에 대해 민감하게 되고, 이러한 민감성은 이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자원공유나 자원고갈의 가능성을 더 높게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수가 적은 경우와 비교해 이주외국인에 대한 수용범위를 좁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성을 높인다. 이러한 민감성은 이주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실제적 위험과는 무관하게 이주외국인에 대한 수용범위를 좁게 할 것이다.

III. 실증연구

1. 자료: 제6차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일반국민이 이주 외국인에 대하여 갖는 인식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추상적인 차원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할 것인가’와 ‘외국인보다 내국인에게 일자리 우선배정’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그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자료를 활용하였다. 세계가치조사는 1981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30년 이상이 되고 세계 10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이다. 민주주의, 세계화, 환경, 및 세계안보를 비롯하여 사회적 다양성, 종교, 양성평등, 소수자에 대한 인식 등 사회적 이슈를 총망라한 조사자료로 평가된다. 세계 100여개국을 대상으로 표본규모도 비교적 커 대표성이 확보된 조사로 평가된다(Won, 2013). 이처럼 세계가치조사가 갖는 효용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15년에 제공된 가장 최근의 조사인 제 6차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이 이주외국인에 대해 갖는 인식구조 및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제6차 세계가치조사는 우리나라 국민 1,20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표본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N(%)	Variables		N(%)
Gender	Female	608(50.7)	Marital Status	Unmarried	348(31.4)
	Male	592(49.3)		Married	762(68.6)
Age	20	250(21.9)	N. of Children	Childless	373(31.7)
	30	261(21.8)		1	164(13.9)
	40	274(22.8)		2	407(34.6)
	50	194(16.2)		3+	234(19.9)
	60+	221(18.4)			
Employment Sectors	Public	697(58.1)	Employment Status	Permanent	376(49.4)
	Private	174(14.5)		Temporary	89(11.7)
				Self-employed	244(32.1)
				Unemployed	52(6.8)

성별은 여성이 다소 많지만 남녀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혼인의 경우, 기혼이 약 69%로 기혼이 미혼에 비해 많고, 자녀수는 무자녀와 2명이 각각 30%를 상회하고 3명이상과 1명이 그 뒤를 따른다. 연령은 20대부터 40대까지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60대 이상과 50대가 그 뒤를 따른다. 고용의 경우, 정규직이 50%를 차지하고, 자영업이 32%를 차지함으로써 자영업 비율이 높은 노동시장 현황을 반영한다. 다만 실업의 구성비가 다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고용과 관련한 결과의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2. 측정도구

세계가치조사에서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민자/이주노동자가 이웃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Would not like to have as neighbors: Immigrants/foreign workers)에 대한 물음이다. 이 측정도구는 Bogardus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한 형태로(Bogardus, 1947), 집단 간 관계에 대한 인식측정의 대표적 도구이다. 이민자/이주노동자와 이웃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배제)와 상관없는 경우(수용)으로 측정하였다.

또 다른 측정도구는 “일자리가 부족할 때 고용주는 이민자보다 내국인에게 일자리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When jobs are scarce, employers should give priority to people of this country over immigrants)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 대한 찬성정도로 ‘반대한다(1)-보통이다(2)-찬성한다(3)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찬성한다는 것은 이주외국인을 포함한 소수집단에게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라는 뜻이 된다.

이주외국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주외국인의 유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고용과 같은 사회적 희소자원을 둘러싼 자원압박이 작용하기 때문이다(Esses, *et. 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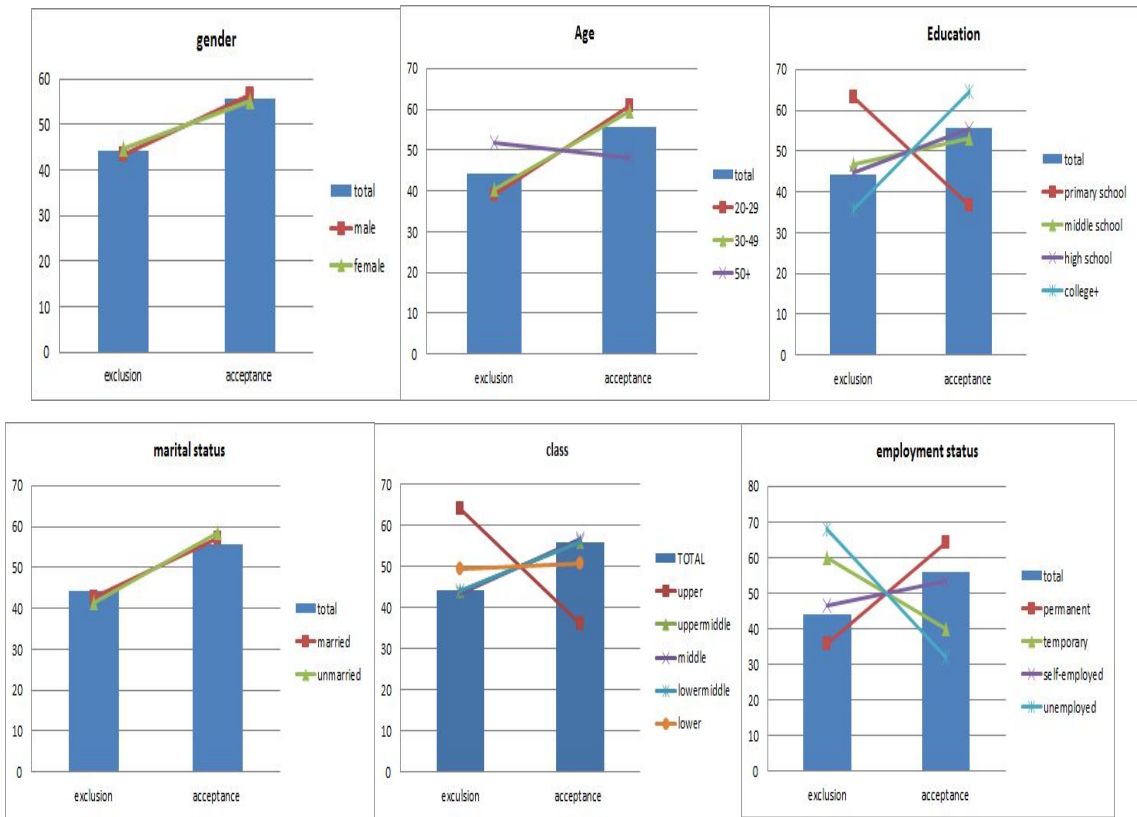
1998, 2001; Won 2008). 이주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제로-섬(zero-sum)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이주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적인 선언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는 위기의식과 연결 된다. 따라서 일자리와 같이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희소자원을 공유할 의지가 있는가에 따라 이주외국인에 대한 수용의 범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세계가치조사(WVS)도 일자리와 관련한 문항을 통해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것이다.

IV. 실증결과 및 논의

1.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구조 I : '이웃'(neighbors)으로 수용

먼저,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민자 또는 이주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수용과 배제의 인식이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200명의 응답자 중 이웃으로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55.8%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인식은 44.2%로 나타났다. 이웃으로 수용하겠다는 인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지만 수용하지 않겠다는 배제의 인식 역시 상당한 비율이라는 점에서 두 인식이 긴장관계에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더욱이 같은 문항에 대하여 미국은 수용이 86.4%, 배제가 13.6%로 나타나 수용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ONline.jsp>). 미국의 결과와 비교할 경우에도 이주외국인의 '이웃'으로 수용 대 배제의 인식이 긴장관계에 있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전반적인 차원의 인식이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 논의된 인구통계 변수에 따라 응답특성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인식구조는 <Figure 3>과 같다.



<Figure 3> Perception towards Immigrants I : Acceptance as Neighbors

※ Note: Based on the question: Would not like to have as neighbors: Immigrants/foreign workers?

<Figure3>에서 보는 것처럼 이주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인식구조가 발견된다. 먼저, 성별과 혼인에 따른 인식 차이는 거의 일치하는 구조를 보인다. 남녀 모두 이주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한다는 인식이 배제한다는 인식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인식구조는 거의 일치한다. 혼인에 따른 인식도 성별과 거의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데 양상은 비슷하지만, 정도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가 발견된다. 혼인의 경우, 기혼이 미혼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배제가 약간 더 높고 이는 이론에서 예측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성별에 있어서 차이는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다소 낮고, 배제하는 정도는 다소 높다.

연령의 경우, 이론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이주외국인에 대한 수용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령집단에서 이주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고, 배제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20대와 30-40대의 인식은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 50대 이상은 2-40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대와 30-40대는 비교적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이 높는데 반해 50대의 경우, 배제는 평균보다 높고

수용은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인식의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50대가 이주외국인에 대한 보수적 인식을 고수하는 세대의 시작임을 보여준다.

비교적 단순한 인식구조를 보이는 성별, 혼인, 연령과 달리 교육수준, 계층인식 및 고용지위에 따른 인식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고용지위의 경우 고려된 모든 집단이 상호 다른 인식구조를 보인다.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정규직이 가장 수용적이고, 실업자 집단이 가장 부정적이어서 이 두 집단의 인식은 반대방향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비정규직은 실업집단과 유사하나 실업자에 비해 수용정도는 다소 높고, 배제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영업은 거의 평균적인 인식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집단에 따른 다양한 인식양상 각 집단이 직면한 경제적 상황과 노동시장에서의 자원압박 정도에 따라 이주외국인에 대한 수용이 달라진다는 이론적 논의를 확인한다 (Espenshade & Hempsted, 1996; Esses, *et. al.*, 2001). 이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자원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별로 수용과 배제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인식차이도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다. <Figure3>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용적인 입장을, 낮을수록 이주외국인 ‘이웃’에 대하여 배타적인 인식을 보여 대졸과 초등 졸 학력의 인식구조가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고졸의 학력은 거의 일치하는 인식구조를 가지고 평균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수준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경우를 양극단으로 하는 인식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2014년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율이 71%에 달하는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수준을 감안할 때(KOSTAT, 2014), 학력이 낮은 집단은 주로 고 연령층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주외국인에 대한 수용정도가 낮은 것은 연령이 많을수록 보수적인 인식을 갖는 연령의 영향력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졸이상은 60%가 넘는 응답자가 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하겠다는 인식을 보임으로써 완전한 대비를 이룬다. 이와 함께 교육수준은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인적자본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도 높을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 이주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자원압박을 덜 받게 되고 이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주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한데 있어서 흥미로운 또 하나의 결과는 계층인식에 따른 인식구조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간계층은 이주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하는 인식이 배제보다 다소 높은 평균적 인식을 보였고, 하위층은 배제가 다소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론적 논의와 유사한 인식구조를 보였다. 이에 반해, 자신의 사회적 계층을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이주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다른 계층집단과는 현격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 계층이 상층일수록 이주외국인과 희소자원을 둘러싼 경쟁가능성이 낮아 이주외국인 유입에 대하여 덜 민감하여 오히려 이주외국인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다는 이론적 논의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서울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외국인의 이주가 주는 위협과 사회문화적 침해에 대한 걱정이 더 많고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차별/배제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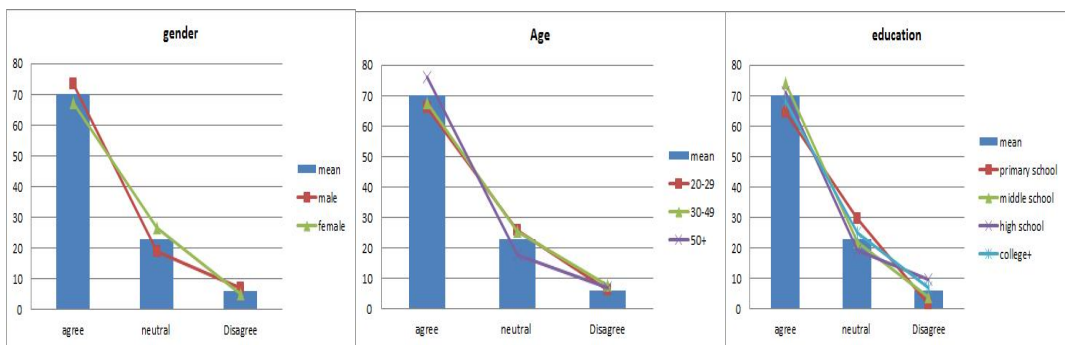
와 맥을 같이 한다(Won, 2011). 결국, 서구와는 달리 경제적 상황이 좋은 집단에서 오히려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관대함이 적은 것은 자원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외국인에 대해 관대해진다는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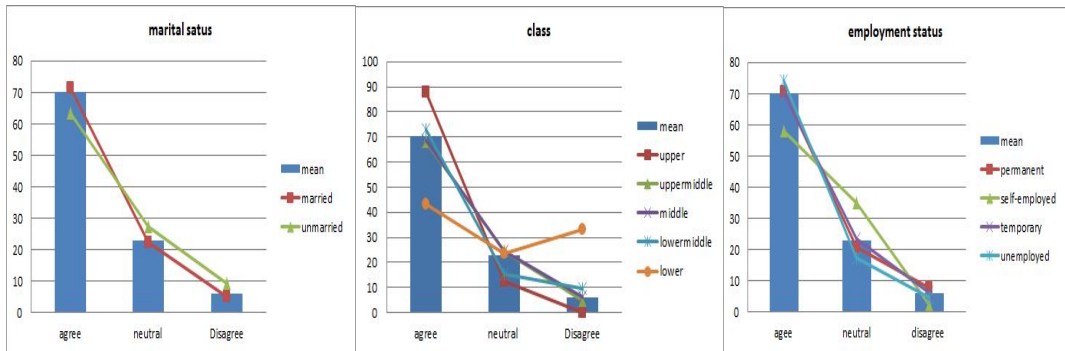
2.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구조 II : 외국인에 대한 '일자리'(jobs) 배정

다음은 '일자리'를 둘러싼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이주외국인보다 내국인에게 일자리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물음에 70%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내국인에 대한 일자리 우선 배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6% 정도로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보통이다>로 표현된 유보적 입장은 20%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이주외국인의 일자리 배정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입장임이 확인되었다. 이론적으로 논의된 것처럼, 희소자원인 일자리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배타적인 인식은 설명가능하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미국은 50%가 긍정적인 대답을, 23.4%가 반대하는 입장을 그리고 <보통이다>의 유보적 태도는 25.7%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전술한 이웃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70%가 찬성한 것에 비하면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민국가인 미국인들도 보수적인 인식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자리'가 갖는 경쟁적이고 체로섬-적 성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처럼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배정의 배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인식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이웃'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배경변수에 따라 재분석하였다.





<Figure 4> Perception towards Immigrants; Allocation of Jobs for Immigrants

※ Note: strongly agree means the most negative perception

<Figure 4>에 따르면, 첫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별, 혼인,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인식의 지형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물론 여성보다는 남성, 미혼보다는 기혼, 그리고 50대 이상에서 인식의 배타성이 다소 높지만 그 양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일자리를 둘러싼 배타적 인식이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기 보다는 비슷한 양상으로 수렴함을 의미한다. 물론 계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배분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이 넓게 공유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일자리배정을 둘러싼 인식의 분화가 복잡하지 않은 배타성을 보이는 것은 ‘일자리’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과 의미를 그대로 반영한다.

둘째, 계층에 따른 인식차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인다. 자신의 사회적 계층이 최상층이라고 인지하거나 최하층으로 인지하는 경우, 중산층과는 다른 인식구조를 보인다. 먼저 최상층으로 인지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우선 배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평균이 70%를 상회하는데 반해 상위계층은 4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반면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내국인에게 일자리를 우선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평균이 6%인데 반해 최상위 계층은 33%로 5배 이상의 인식차이를 보인다. 이는 최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일자리를 두고 이주외국인과 경쟁할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이주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우선 배정한다고 해서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일자리나 자신들에게 돌아올 자원배분 방식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 이주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배타적인 인식을 보인 상위계층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가장 관대한 인식을 보이는 대조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이러한 인식의 이중성은 감정적으로는 이주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상위 계층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계층이 최하위층이다. 이주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고, 그 정도는 평균을 훨씬 뛰어넘은 수준이다. 자신의 사회 계층을 최하위층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주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자원결핍’과 ‘자원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주외국인의 경우, 3D직업을 포함해 주류사회구성원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주로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는 내국인중에서는 하위층이 주로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주외국인의 유입은 바로 하위층 자신들과의 경쟁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불안감과 위협의식은 그 어느 계층보다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가능성과 체로섬 관계인식이 하위계층에게는 이주외국인의 유입이 새로운 사회위험요소로 가장 현저해지는 것이다.

넷째, 이주외국인의 ‘이웃’으로 수용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다양한 인식구조를 보였던 고용지위가 일자리 우선배정에 있어서는 단순한 구조로 나타났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집단에 따른 약간의 정도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치하는 인식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이주외국인보다 내국인에게 일자리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인식에 고용지위에 따라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영업의 경우,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다소 낮고, 잘 모르겠다는 중간적인 입장이 다소 높게 나타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두고 외국인과 경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처럼 ‘창업’을 기초로 한 경우는, ‘고용’을 기초로 하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이주외국인에 의한 자원경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자원스트레스’가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3.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

이상의 인식구조에 더하여,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술한 인식구조에서 논의한 것처럼 일자리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일자리를 둘러싼 자원경쟁이 외국인 인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것처럼 이주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은 자녀수, 연령, 성별 및 고용지위 중 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적을수록, 정규직에 비해 실업자 집단이 이주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함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3 > Antecedents of Perception towards Job allocation for Immigrants

	B	β	t
Constants	2.675		16.930***
Fairness	.018	.061	1.444
Political Ideology	.009	.033	.757
Class	-.040	-.058	-1.342
Gender	.111	.094	2.151*
Age	-.063	-.131	-2.297*
Marital Status	-.054	-.041	-.660
N. of Children	.107	.212	3.096**
Employment Status	Temporary	.089	1.073
	Self-employed	-.032	-.515
	Unemployed	.169	1.435+
R ²		.039	
F		2.018*	

+p<.1, *p<.05, **p<.01, ***p<.001,

note: Gender- male(1), Marital status-married(1), employment status- permanent(0)

첫째, 자녀수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결혼여부는 영향이 없는데 반해, 자녀가 많을수록 이주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된다. 서구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에서 자녀수의 영향력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반해 이처럼 자녀수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자원압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자녀가 많을 경우, 부양부담이 늘어나고 이러한 부양부담은 자원압박을 강화하고, 자원압박은 자연스럽게 ‘일자리’에 대해 민감하게 만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4년 현재 연간 사교육비가 20조를 육박하고(교육부, 2014),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불법사교육비를 합하면 30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http://news.heraldcorp.com>). 이처럼 교육비의 부담은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처럼 자녀를 둘러싼 현실이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이다.

자녀수가 많은 경우 이주외국인의 증가가 갖는 위험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전술한 자원압박과 함께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주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희소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현재 자신의 일자리만을 고려하겠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그리고 그 수가 많아질수록 이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자기 자녀가 갖는 미래의 일자리 경쟁에 대한 고민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녀가 많을 경우, 일자리를 둘러싼 자원압박 인식이 현재 자신의 부양책임과 자녀의 미래 일자리 경쟁에 대한 위험인식이 함께 더해져 이주외국인의 일자리 배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상승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연령의 영향력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밝힌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주의

국민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인식을 보인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 달리 연령이 낮을수록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논의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의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일자리’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포 세대를 넘어 7포세대로 운위되는 청년일자리를 둘러싼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은, 나이가 어릴 경우 진보적인 인식을 갖는 일반적인 논의와 달리, 일자리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하게 만든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청년실업’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위협의식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훨씬 높게 인식할 개연성을 높인다. 결국, 일자리를 둘러싼 자원압박은 일반적으로 청년층이 갖는 진보적 인식과 무관하게, 이주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위협인식을 더 높게 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지위에서 실업집단의 영향력과 유사하다. <Table 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은 그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업집단은 이주외국인의 일자리 배정에 대하여 정규직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바와 같이, 실업집단이 이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자원압박’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안정성이나 노동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하지만, 아직은 고용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업집단보다는 자원압박의 위협을 덜 느낀다. 자영업의 경우도 활동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주외국인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할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다. 이에 반해 실업집단의 경우, 일자리로부터 벗어난 상황에서 일자리에 대해 훨씬 민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내국인과의 경쟁은 물론 이주외국인과의 경쟁까지 더해질 지도 모른다는 위협의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V. 결론

오랫동안 단일민족-단일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우리나라에서 인종적 다양성의 증가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도전이고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진행된 이주외국인의 증가는 그러한 위협의식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주 외국인의 유입은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의 변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차별, 문화적 개방과 다양성의 확대, 소수인종의 정치적 입지 변화 등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사회 위협’으로 인식될 여지를 높인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이 갖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구조와 그러한 인식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 타당성과 대표성이

국제적으로 확보된 2015년 제 6차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추상적 수준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이주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하는 정도, '이주외국인에 대한 일자리 배정'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인식구조와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외국인을 '이웃'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수용과 배제의 인식이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는데 반해, 이주외국인에 대한 '일자리'배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같은 맥락에서 '이웃'으로의 수용에 있어서는 집단에 따른 차이가 많이 복잡한데 반해 '일자리'의 경우,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비교적 적다. 전자는 다소 유연한 인식구조가 허용되는데 반해 '일자리'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집단이 '배타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사회를 관통하는 '일자리'가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그대로 확인하는 결과이다.

둘째,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자원스트레스'가 갖는 영향력이 재확인되었다(Espenshade & Hempsted, 1996; Esses, *et. al.*, 2001). 이는 도구적 집단갈등모형(IMGC: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의 설명력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Esses, *et. al.*, 1998, 2001; Won, 2008: 34). 교육수준이 낮고, 고용지위가 불안하고, 고용조건이 열악하며, 사회적으로 하위계층에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주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평등이나 사회적 정의와 같은 가치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 '현실'의 문제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치권이나 정책입안자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적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사회적 계층화가 심화될수록 이주외국인의 유입은 그 자체로서 위협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셋째, 일자리와 관련하여 자원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인식되는 청년층이나 자녀가 많은 경우, 그리고 실업집단이 이주외국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고민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나이가 어릴수록 외국인에 대하여 관대하다는 기존의 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은 주목해야 한다. 이렇듯 일자리를 둘러싼 어려움 속에서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 다양성이 우리사회와 문화를 윤택하게 하리라는 '장밋빛 수사'는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고령인구가 노동시장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상대적 무게 중심이 전자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청년층일자리의 부족과 그에 따른 자원스트레스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주외국인을 둘러싼 신 사회위험 인식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수의 영향력은 정부가 저출산의 문제를 규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특히 일자리-이 매우 부정적임이 확인되었다. 자녀수의 증가가 자원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는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저출산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 과생된 이주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까지 연결되는 다차원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저출산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외국인 이주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식의 차원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아닌 ‘이웃’과 ‘일자리 배정’과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1,200명이라는 비교적 큰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그 대표성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세계가치조사에서 실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조사가 끝난 이차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조사설계 과정에 연구자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가치조사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이웃으로 수용이나 일자리배정을 각각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모든 사회현상은 다차원적인 구성물이므로 단일문항으로의 측정은 불완전대표성(imperfect representation)의 한계가 불가피하다(Law & Wong, 1999: 144).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교정할 수 있는 관련 연구의 수행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References

- Alexander, J. 2001. Theorizing the ‘Modes of Incorporation’: Assimilation, Hyphenation, and Multiculturalism as Varieties of Civil participation. *Sociological Theory*. 19(3): 237-249.
- Ayers, J., C. Hofstetter, K. Schnakenberg, & B. Kolody. 2009. Is Immigration a Racial Issue? Anglo Attitudes on Immigration Policies in a Border Country. *Social Science Quarterly*. 90(3): 593-610.
- Bogardus, E. 1947. Measurement of Personal-Group Relations. *Sociometry*. 10(4): 306-311.
- Castles, S. and J. Miller Mark.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rd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hun, Y. 2010. *State Policy for Social Minority in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Coenders, M., M. Lubbers, and P. Scheepers. 2003. *Majoritie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overview of Theories*. Hypotheses and Results of Majorities Towards Minorities. EUMC.
- Espenshade, T. and K. Hempstead. 1996. Contemporary American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2(3): 189-224.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 Press.
- Esses, V. M., L. M. Jackson, and T. L. Armstrong. 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699-724.
- Han, S. and C. Park. 2011. The Impact of Public Policy on Social Construction of Foreigners: Comparative Case Study of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s.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20(1): 51-82.
- Hwang, J. 2007. *Attitude towards Multi Cultural Society and Social Exclusion of Racial Minorit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Jackson, J., K. Brown, T. Brown, and B. Marks. 2001. Contemporary Immigration Policy Orientations Among Dominant-group Members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31-456.
- Kim, K., Y. Kim, Y. Choi, S. Kim, S. I. Kim and M. Hwang. 2010. Ideal Type Analysis on the Welfare State Change: Capturing the New Social Risks and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5(2010): 31-54.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 Law, K. and Chi-Sum, Wong. 1999. Multidimensional Construct in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An Illustration Using the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Constructs. *Journal of Management*. 25(2): 143-160.
- Ministry of Education. 2014. Educational Statistics.
- 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s Service. 2013. Statistics Book.
- Park, J. and S. Won, 2010. Antecedents of Perception of Public Servants towards Foreigner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4(3): 191-217.
- Pettigrew, T. and R. Meertens. 1995. Subtle and Blatant Prejudice in Western Europe. *European J. of Social Psychology*. 25: 57-75.
- Song, M. 2010. The Factors Influencing Multi cultural Receptivity in Korea. *Minjok Yeonku*. 41: 74-97.
- Statistics Korea. 2014. Social Survey.
- Taylor-Gooby, P. 2004. *New Risks and Social Change*. Taylor-Gooby. (eds.). New Risk,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D., J. Jackson, T. Brown, M. Torres, T. Forman, and K. Brown. 1999.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Prejudice and Urban Whites' Support for Affirmative Action and

Government Help. *Social Problems*. 46(4): 503-527.

Won, S. 2008. Exclusion or Inclusion? Discrimination Policy Orientations for Minority Groups under Multiculturalism.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2(3): 29-49.

Won, S. 2011. Perception towards Foreigners and State Policy for Foreigners: Differences in Provenances of Seoul Metropolitan. *Public Policy Review*. 25(4): 27-54.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교육부. 2014. 교육통계.

김교성, 김연명, 최영, 김성욱, 김송이, 황미경. 2010.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이념형 분석: 신사회 위험의 등장과 사회투자전략의 모색.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5: 31-54.

박진경, 원숙연. 2010.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 44(3): 191-217.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송미영. 2010.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분석. *민족연구*. 41: 74-97.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49.

원숙연. 2011. 외국인 및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지형분석: 서울시 25개 구(區)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시도. *국가정책연구*. 25(4): 27-54.

전영평. 2010. 한국의 소수자 정책.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통계청. 2014. 사회통계.

한승준, 박치성. 2011. 외국인 정책의 사회적 형성에 관한 연구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51- 82.

황정미. 2007.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종적 배제주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숙연: 영국 University of Nottingham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Working Mothers in the Korean Gender Welfare Regime: The Patriarchal Triangle of the State-Family-Workplace),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여성, 이민자 등 소수자관련 정책, 젠더와 조직, 질적연구 등이 관심분야이며, 주요논문으로는 “State Policy? Traditional Gender Stereotypes? Relative Contributions of Factors Effecting Positive Work-family Interface for Working Mothers in Korea(2015)”, “새로운’ 정책대상자로서 이주 외국인 여성의 인식 지형(2014)”, “외국인 정책에 대한 공무원 인식의 역학(2013)” 등이 있다(sywon@ewha.ac.kr).